



어센시오

“KIA 뒷문, 이 손 끝에 달려있소”



출발은 좋다. 마무리도 좋아야 한다. KIA 마무리 어센시오의 이야기다.
어센시오는 KIA가 고심 끝에 영입한 마무리 전문 투수다. 지난해 볼티모어 소속으로 뛰는 등 빅리그에서 4시즌, 마이너리그에서 9시즌을 경험했다. 볼펜에서의 경험과 매력적인 구위로 소방수로 낙점을 받았다. 시범경기에서 플러코스터를 탔지만 본부대에서의 출발은 나쁘지는 않다. 일단 2이닝 무실점으로 2세이브를 가져왔다. 난적 삼성과의 개막전에서 2-1, 1점차 승부를 지켰고 1일 NC와의 경기에서는 1-0 영봉승을

어센시오, 2경기 2세이브 쾌조의 출발

체인지업 주무기...수호신 역할 '톡톡'

완성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안한 부분이 있기는 했다. 개막전에서는 첫 타자 최형우의 안타에 이어 대주자 박찬도의 도루로 1사 2루의 위기를 맞았다. 박석민의 삼진 이후 범타로 이닝을 마무리하기는 했지만 1루수 김민우의 호수비로 만든 아웃카운트가 컸다. 1일 등판에서도 2사에서 이호준에게 안타를 하나 내준 어센시오는 유격수 김선빈의 도루 속에 1이닝 무실점을 완성했다.
빈틈도 있었지만 어찌 됐든 중요한 두 개의 세이브를 챙겼다. 그리고 아직 한국무대에 적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페이스다.
본인은 “긴장하지 않았다”고 웃었지만 1일 홈개막전을 앞둔 어센시오의 긴장감은 컸다. 어센시오의 큰 소리와 달리 볼펜에서 많이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개 관계자들의 얘기가. 평소보다 더 오래 공을 들여서 볼펜 피칭을 하면서 9회를 기다렸다. 2만 2000명의 만원 관중이 들어선 홈에서의 첫 등판인데다 숨막히는 마운드 싸움이 전개됐다. NC의 베테랑 손민한도 실책을 할 정도로 긴장감 높은 경기였다.
어렵고 중요한 경기를 잘 마무리 한 만큼 앞으로 본인의 위력을 100%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경수 투수 코치의 생각이자 바람이다.

김 코치는 “시범경기에서는 몸을 준비하는 단계였다고 얘기를 하더라. 공을 던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배짱이 있는 선수다. 그리고 금방 문제점을 파악하고 노력하는 것 같다. 자신의 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다양하게 공을 던진다면 좋은 활약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어센시오는 한국 적응을 하면서 한 차례 업그레이드 됐다. 투구 습관이 노출되면서 세밀한 한국 야구의 매운 맛을 경험했다. 전력 분석과 높은 한국의 벽을 경험하면서 투구 습관을 고치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

무결점 마무리를 위해 남은 속제 하나는 다양한 변화구 승부다. 어센시오의 주무기는 체인지업. 1일 경기에서도 직구와 체인지업 승부를 했다. 볼펜에서도 체인지업 위주로 컨디션을 점검하는 편이다. 커브와 슬라이더도 매력적인 만큼 조금만 더 다양한 변화구 승부를 한다면 KIA의 뒷문도 든든하게 잠길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말.말.말

팀타율 낮다는 말에 KIA 홍보팀 “타율·방어율 같습니다”

▲“자는 사이에 누가 저 때린 것 같아요”
2일 몸을 풀고 덕아웃으로 들어오던 양현종, 온몸이 수시되면서. 양현종은 1일 등판에서 8회까지 122개의 공을 던졌다. 양현종의 역대 최다 투구수는 2010년 7월21일 삼성전에서 기록한 133개다.

▲“타율하고 방어율이 같습니다”
KIA 홍보팀. 팀 타율이 낮을 거라는 선동열 감독의 얘기에. KIA의 앞선 세 경기 방어율은 1.73으로 한 경기만 처트 NC(0.000)을 제외하고는 가장 좋은 방어율은 보였다. 타율은 1일 현재 0.176으로 최하위다.

▲“제가 왜요?”
1일 NC와 경기 후 인터뷰를 위해 대기하던 이대형. 활약을 하지 않았는데 인터뷰 하자고 한다며. 8회 상대 실책으로 출루한 이대형은 김주찬 안타 때 3루를 밟은 뒤, 이범호의 땅볼 타구를 처리하던 손민한이 공을 떨어뜨

린 사이 홈까지 파고들면서 득점을 기록했다. 이 득점으로 KIA는 1-0 승리를 거뒀다.

▲“보는 것만으로도 야구가 들어요”
신인 강한울. 덕아웃에 앉아서 경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실력이 느는 것 같으며.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만 보였다

필라델피아전 3타수 2안타

동점·결승 득점 ‘원맨쇼’

‘출루 기계’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가 2014 미국프로야구(MLB) 정규리그 개막 두 번째 경기에서 4차례나 출루해 귀중한 동점 득점과 현금같은 역전 결승득점을 올리고 맹활약했다.

추신수는 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홈경기에서 톱타자 좌익수로 출전해 올 시즌 첫 안타를 포함해 3타수 2안타를 치고 몸에 맞은 볼 1개, 볼넷 1개를 얻어내 네 차례 1루를 밟았다.

추신수의 볼넷 출루로 2-2로 맞선 9회말 끝내기 기회를 잡은 텍사스는 프린스 필더의 볼넷으로 이어간 1사 1,2루에서 터진 4번 타자 에드ريان 벨트레의 결승 중전 적시타에 힘입어 3-2로 이겼다.

전날 개막전에서 클리프 리를 필두로 필라델피아의 왼손 투수 삼총사에게 4타수 무안타(볼넷 1개)로 묶인 추신수는 하루만에 180도 달라진 모습을 선사하며 홈 팬에게 화근하게 인사했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86(7타수 2안타)으로 올랐다. /연합뉴스



“악! 내 발등”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는 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홈경기 3회 두번째 타석에서 초구에 왼쪽 발등을 맞아 출루했다. /연합뉴스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